



2022년 도쿄타워 내에 거대한 e스포츠와 4월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탄생

도쿄타워 밑에 있는 foot town에 일본 최대 규모의 e스포츠 파크 'RED° TOKYO TOWER'가 개업한다. 1·3·4·5층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총면적은 약 5600㎡나 된다. 최신 게임 타이틀 체험 구역을 비롯해 e스포츠 대회와 음악 라이브, 패션쇼 등 다양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전개하는 아레나와 라이브 스튜디오, 춤 등 흥미롭고 유니크한 오락 시설이 모인 공간이다. 2022년 2월에 사전 오픈으로 5층 메인 아레나 'RED° TOKYO TOWER SKY STADIUM'과 e스포츠 대회를 메인으로 실시하는 서브 아레나 등이 개업 예정. 뒤이어 4월에 전 층이 그랜드 오픈 예정이다.



📍 아카바네바시역(지하철) red-esports.jp/



2022년 3월 롯폰기 '센오쿠 하쿠코관 도쿄' (SEN-OKU HAKUKOKAN MUSEUM TOKYO) 리뉴얼 오픈

교토에 있는 센오쿠 하쿠코관의 분관으로 2002년에 개관. 일본을 대표하는 재벌 중 하나인 스미토모가의 컬렉션 근대 회화와 공예품, 차 도구 등을 전시했었다.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리뉴얼과 동시에 관명도 '센오쿠 하쿠코관 도쿄'로 변경했다. 리뉴얼 후에는 전시 공간의 확대와 함께 카페와 뮤지엄숍, 강당 등이 신설된다. 비지니스 거리인 롯폰기 1초메에는 녹음에 둘러싸인 도쿄의 새로운 휴식처가 될 것이다.

📍 롯폰기1초메역(지하철) sen-oku.or.jp/tokyo/

2022년 도쿄역의 먹거리 봄 구역을 대폭 리뉴얼

도쿄역 개찰구 안팎에는 많은 식당과 가게가 준비하다. 그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2개의 먹거리 구역 '키친 스트리트'와 '구로베이 요코초'가 2021년 8월에 아쉽게 폐관하지만 2022년 봄에 리뉴얼 오픈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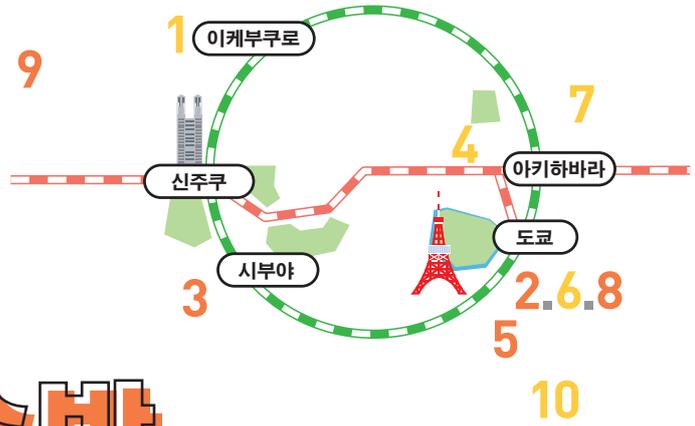
이 구역은 도쿄와 전국 유명 점포의 맛을 이동 중에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었다. 이번 리뉴얼로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 도쿄역(JR, 지하철) www.gransta.jp/mall/kitchenstreet/



©東京ステーションシティ運営協議会

도쿄 X 유니크한 호텔 숙박



도쿄에는 여행자를 설레게 하는 다양한 콘셉트의 개성적인 호텔이 많이 있다. 호텔에서 느긋하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도쿄 숙박을 즐겨 보자.



hotel Siro

세 팀의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전 객실은 각기 다른 느낌을 준다. 깔끔하고 심플한 분위기에 편의 용품까지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 최고층의 글램핑 스위트에선 도심 속 캠핑 기분을 즐길 수 있다. 호텔 내의 'CAFÉ 시로후쿠로'에서 긴자 '니시카와'의 고급 식빵을 사용한 토스트 세트 등을 먹을 수 있다.

- ★ 전 41실
 - 📍 이케부쿠로역(JR, 지하철, 세부)
- hotel-siro.jp/



©Ryota Ataras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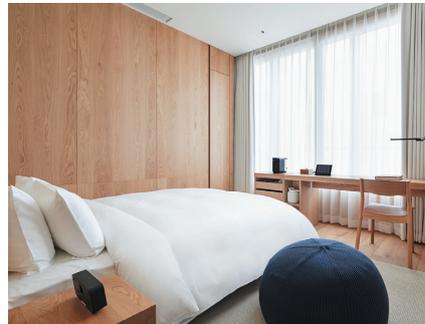
1

IKEBUKURO

MUJI HOTEL GINZA

생활 잡화 전문점 '무인양품'이 운영하는 호텔. 가구부터 편의 용품까지 대부분이 무인양품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빌딩 1~6층은 무인양품의 세계적 대표 매장 '무인양품 긴자'가 있고 지하 1층에는 레스토랑이 있어 쇼핑부터 식사까지 무인양품을 만끽할 수 있는 숙박이 가능하다.

- ★ 전 79실
 - 📍 긴자역(지하철), 긴자 1초메역(지하철), 유라쿠초역(JR, 지하철)
- hotel.muji.com/ja/en/



©Nacasa & Partners

2

GINZA

EN HOTEL Shibuya

“Something Happens?!” 특별한 일이 생길지도?!’ 라는 콘셉트로 만화와 가면극 무대 등 9개의 각기 다른 세계관으로 설계된 각 층과 일본의 전통과 서양의 합리성이 조화를 이룬 객실이 특징인 호텔. 1층에 있는 카페 ‘쓰바기 살롱’에선 입 안에서 살짝 녹는 식감이 매력적인 ‘훗카이도 핫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

- ★ 전 55실
 - 📍 시부야역(JR, 지하철, 도쿄, 게이오)
- www.shibuyahotel.jp/en/



3

SHIBUYA

toggle hotel suidobashi

2021년 4월에 오픈.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내부 디자인이 예쁜 호텔. 객실은 물론 라운지와 복도, 편의 용품까지 차분한 두 색의 조화로 꾸며져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잘 나온다. 최상층에 있는 café & Lounge에는 테라스 좌석도 있어 도쿄의 거리를 바라보며 샌드위치와 스프를 즐길 수 있다.

- ★ 전 84실
 - 📍 스이도바시역(JR, 지하철), 이다바시역(JR, 지하철)
- www.togglehotel.com/suidobashi/en/



4

SUIDOBASHI

파크 호텔 도쿄

‘일본의 미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시공간’이란 콘셉트로 아트를 의식한 공간을 연출한 호텔. 아티스트가 실제로 숙박하면서 벽지에 직접 그림을 그려 객실을 개장하는 프로젝트로 2021년 현재 32실의 ‘아티스트 룸’이 탄생. 호텔에서 아트 전시도 하고 있어 마치 미술관에 머물고 있는 듯한 체험이 가능하다.

★ 전 270실

📍 시오도메역(지하철, 유리카모메), 신바시역(JR, 지하철)

parkhoteltokyo.com/art-at-park-hotel-tokyo/artist-in-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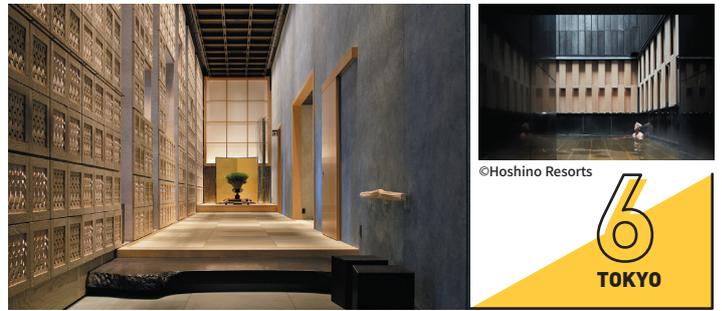
5
SHIODOME

호시노야 도쿄

도쿄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호시노 리조트가 운영하는 일본 여관. 객실은 다타미, 장지문, 등(燈)과 같은 일본의 전통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도 멋스러운 공간이다. 최상층에는 숙박자 한정 천연 온천이 있어 도심에서도 노천탕을 즐길 수 있다. 전통 예능 감상과 검술 연습, 사계절 행사를 테마로 한 다양한 구성의 액티비티가 개최되므로 숙박만으로도 일본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 전 84실 📍 도쿄역(JR, 지하철), 오에마치역(지하철)

hoshinoya.com/tokyo/en/



6
TOKYO

THE KANZASHI TOKYO ASAKUSA

아사쿠사의 노포 음식점이었던 터에 일본의 미를 테마로 지은 호텔. 옥상 테라스에서는 도쿄 스카이트리와 센소지 등 아사쿠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요가를 즐기거나 야경을 보며 파티도 할 수 있다. 객실은 차분한 와(和) 모던 스타일의 인테리어. 레스토랑은 가루이자와에 본점이 있는 ELOISE's Café의 인기 메뉴, 프렌치 토스트 등을 맛볼 수 있다.

★ 전 195실

📍 아사쿠사역(TX, 지하철)

kanzashi-tokyoasakusa.com/en/



7
ASAKUSA

아로프트 도쿄 긴자

아트·음악·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형 라이프 스타일 호텔. 대담한 디자인의 인테리어에 현대 아트를 도입한 독창성 넘치는 공간이다. Marriott Bonvoy어플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을 룸키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진화한 테크놀로지를 체험할 수 있다. 1층 ‘W XYZ Bar’, 2층의 ‘The WAREHOUSE’ 그리고 옥상 ‘Roof Dogs’ 호텔 내 3곳의 레스토랑&바에선 멋진 음악과 함께 식사와 드링크를 즐길 수 있다.

★ 전 205실

📍 긴자역(지하철), 히가시 긴자역(지하철)

www.marriott.co.jp/hotels/travel/tyoal-aloft-tokyo-ginza/



8
GINZA

게이오 플라자 호텔 다마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리틀트윈스타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밝고 귀여운 콘셉트룸이 있다. 편의 용품으로 준비된 마스크트 인형과 토트백 등의 굿즈도 가져갈 수 있어 즐거움을 더해 준다.

★ 전 248실(산리오 캐릭터 룸은 8실)

📍 다마센터역(게이오, 오다큐, 다마 모노레일)

www.keioplaza.co.jp/tama/stay/rooms/sanrio.html



9
TAMA-CENTER

©2021 SANRIO CO., LTD. APPROVAL NO. L621371

PETALS TOKYO

아트 시설과 멋스러운 술집이 모여 있는 운하 마을 덴노즈. 운하에 정박한 4채의 컬러풀한 보트는 수상 호텔이다. 오래전부터 운하를 중심으로 발전한 암스테르담의 ‘하우스 보트’처럼 내부 인테리어도 수제품으로 각기 다른 디자인을 콘셉트로 하고 있다. 객실에서 본 경치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분이 들게 한다.

★ 전 4실

📍 덴노즈아일역(린카이션, 도쿄 모노레일)

www.terrada.co.jp/en/service/space/petals-tokyo/



10
TENNOZU ISLE

도쿄의 겨울

일루미네이션 이벤트

겨울의 도쿄라 하면 반짝이는 일루미네이션이 생각난다. 도심의 인기 명소는 물론 도심에서 조금 떨어지면 낯익은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다.

❄️ 오이 경마장 도쿄 메가일루미 2021/10/16~2022/4/10

www.tokyomegaillumi.jp/

작년 어느 일본의 정보 사이트 '가 보고 싶은 일루미네이션 랭킹'에서 전국1위를 차지한 오이 경마장(시나가와구)의 일루미네이션. 분수와 레이저를 사용하여 펼쳐지는 '메가일루미 쇼'를 비롯해 광대한 부지에서 빛나는 수많은 일루미네이션도 꼭 보도록 하자. 경마장이기에 가능한 귀여운 말들과의 사진 촬영 이벤트도 개최 중.

- ¥ 예매권 성인 800엔, 당일권 성인 1,000엔
- 🚗 오이게이바조마에역(도쿄 모노레일)



❄️ 요미우리 랜드 주얼리 일루미네이션 2021/10/21~2022/4/3

www.yomiuriland.com/en/jewellumination/

매년 인기가 높은 일루미네이션. 12회째인 올해는 평온한 미래를 지향하는 '포에버 그린 주얼리 컬러' 콘셉트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그린 전력을 사용하여 환경을 배려한 점도 포인트다.

- ¥ 입장료 성인 1,800엔 외
- 🚗 게이오 요미우리랜드역(게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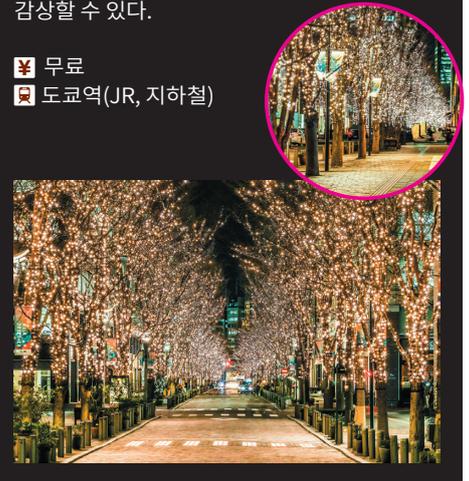


❄️ 마루노우치 일루미네이션 2021 2021/11/11~2022/2/20

www.marunouchi.com/

도심을 대표하는 일루미네이션으로 매년 마루노우치 나카도리를 중심으로 340그루 이상의 가로수가 샴페인 골드색으로 꾸며진다. 올해는 7월에 오픈한 'TOKYO TORCH Park'에서도 개최되므로 옥외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 ¥ 무료
- 🚗 도쿄역(JR, 지하철)



❄️ 그랜드베리 파크 윈터 하모니 2021/11/3~2022/2/27

gbp.minamimachida-grandberrypark.com/winter_harmony/

'스누피 뮤지엄'과 인접한 상업 시설 '그랜드베리 파크'에는 스누피와 콜라보한 이곳만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트리(11/15~12/25)와 스케이트장(12/11~2/27)이 등장한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PEANUTS』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다.

- ¥ 무료 ※일부 유료 콘텐츠 있음
- 🚗 미나미마치타 그랑베리파크역(도큐)



❄️ WINTER RISE 2021 with the World of Eric Carle 2021/11/12~2022/3/8

www.rise.sc/winterrise2021/

복합 상업 시설 '후타코타마가와 라이즈'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림책 '배고픈 애벌레'의 작가 에릭 칼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이벤트를 개최. 이야기 속 세계를 따스함이 느껴지는 빛으로 표현한 일루미네이션과 스케이트장을 3월까지 즐길 수 있다.

- ¥ 무료
- ※일부 유료 콘텐츠 있음
- 🚗 후타코타마가와역(도큐)



❄️ 도쿄 스카이트리 타운 매직컬 크리스마스2021 2021/11/1~12/25

(일부 일루미네이션은 2022/3/6까지)

www.tokyo-solamachi.jp

마치 도쿄 스카이트리 타운 전체가 마법에 걸린듯 환상적이고 눈부신 약 40만 구의 일루미네이션으로 반짝인다. 도쿄 스카이트리도 크리스마스 트리와 촛불을 이미지로 한 특수 조명을 점등한다. 12월 상순~2022년 2월 하순에는 스카이트리 밑에 스케이트장도 등장하여 활기를 더 할 것이다.

- ¥ 무료 ※일부 유료 콘텐츠 있음
- 🚗 도쿄 스카이트리역(도부), 오시아게 <스카이트리마에>역 (지하철, 게이세이)



◆도쿄 관광 공식 사이트
GO TOKYO

www.gotokyo.org/kr/



⇒ **편집후기** 붉게 물든 단풍의 절정이 지나면, 일본식 정원의 돌계단과 이끼 정원에 사르르 떨어진 단풍잎이 가을의 여운과 지나가는 계절의 흐름을 느끼게 합니다. 떨어져 깔려 있는 단풍을 의미하는 '지리모미지(散紅葉)'는 일본의 정형시인 하이쿠에서도 가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떨어진 낙엽에서도 운치를 즐겼던 일본의 늦가을을 나타내는 한 장면입니다.

